

문왕[文王]

발해 전성기의 기틀을 다지다

미상 ~ 794년(성왕 1)

1 무왕(武王)의 뒤를 이은 문왕(文王)

문왕(재위 737~793)의 이름은 대흥무(大欽茂)로, 737년 무왕(재위 719~737) 대무예(大武藝)가 병으로 죽자 발해의 3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2 당과의 교류와 내부 체제 정비

무왕 대무예는 시호(諡號)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력을 바탕으로 당의 등주(登州)를 공격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였지만, 문왕 대흥무는 당과의 우호를 선택하고 당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발해 내부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체제 정비에 중점을 두고 문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통치를 우선에 두었다. 뒤에 선왕(宣王) 대에 발해가 해동성국(海東盛國)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대흥무의 정책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이다. 문왕의 57년이라는 긴 재위 기간도 발해가 건국기를 지나 안정기에 접어드는 데 한몫을 하였다.

문왕은 57년의 재위 기간 동안 당에 61회 이상 사신을 파견하였는데 즉위 한 다음해인 738년 당에 사신을 보내 『당례(唐禮)』,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삼십육국춘추(三十六國春秋)』의 필사를 요청하였다.

특히 『당례(唐禮)』는 732년에 완성된 『대당개원례(大唐開元禮)』를 의미하는데 문왕은 자신의 시호에 걸맞게 즉위 초반부터 최신의 당의 예의와 제도, 유학(儒學) 받아들이면서 문치(文治)를 지향하였고 한편으로는 무왕 대와는 달리 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왕 대에는 3성(省) 6부(部)의 중앙 정치 기구가 마련되었다. 3성은 선조성(宣詔省), 정당성(政堂省), 중대성(中臺省)으로 각각 당의 문하성(門下省), 상서성(尙書省), 중서성(中書省)에 비견된다. 6부는 충부(忠部), 인부(仁部), 의부(義部), 지부(知部), 예부(禮部), 신부(信部)가 있는데 각각 당의 이부(吏部), 호부(戶部), 예부(禮部), 병부(兵部), 형부(刑部), 공부(工部)에 해당한다. [관련자료](#) 발해의 3성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조성인데 선조성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부서로서 '조(詔)'는 칙(勅)이나 제(制)처럼 황제의 명령을 뜻한다. 발해에서는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조'라고 하였고 이는 문왕을 '황상'이라고 불렀던 내용과도 연결된다.

또한 발해는 사방 5천리의 넓은 영역을 5경(京) 15부(府) 62주(州)로 나누어 통치하였는데 지방 제도의 완비는 선왕 때(재위: 818~830) 이루어지나 777년(문왕 41)에 15부 중의 하나인 남해부(南海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문왕 때부터 당의 부주현(府州縣) 제도를 받아들여 지방 제도를 정비해 나갔던 것 같다. 5경은 상경, 중경, 동경, 남경, 서경이고 15부는 상경의 용천부, 중경의 현덕부, 동경의 용원부, 남경의 남해부, 서경의 압록부, 장령부, 부여부, 막힐부, 정리부, 안변부, 솔빈부, 동평부, 철리부, 회원부, 안원부이다. [관련자료](#)

3 문왕의 자신감-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 황상(皇上), 천손(天孫)

발해사를 복원할 자료가 매우 부족한 현실에서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워줄 금석문(金石文)의 발견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 1949년 길림성 돈화시 옥정산 고분에서 정혜공주무덤이 발굴되었고, 1980년에는 길림성 화룡현 용두산에서 정효공주무덤이 발견되었다. 정혜공주(738~777)는